

##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물질도구 사라질 위기

<19>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민속자료 제10호'

데스크승인 2014.07.10 이윤주 기자 | yjhnb@jejunews.com



전통적으로 제주 해녀는 반농반어 생업의 주체로서 기계장치 없이 맨 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숨을 참으며 해산물을 채취 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물질'이라고 부른다.

물질은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 '섭라(제주)에서 야명주(진주)를 진상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조선시대 기록에는 1629년 이건의 '제주풍토기'에는 해녀들이 전복을 채취한 내용이 기록돼 있고, '조선왕조실록', 이익태의 '지영록', 위백규의 '존재전서' 등의 문헌 자료에 해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제주의 여자아이는 7~8세가 되면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을 만큼 물질은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같이 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물질할 때 입는 물옷과 물질에 사용하는 도구를 포괄해 해녀용품이라고 한다. 해녀용품은 해녀들이 험난한 물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제주인의 삶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넉넉하지 않았던 물자를 가지고 고안해야 했기 때문에 실용성, 창의성이 깃들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도구와 복식이 점차 사용되지 않거나 시대에 맞춰 변하고 있어 기존 해녀용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12월 2일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15점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했다.

해녀박물관 소장 용품 중에 오래 된 것, 해녀들이 직접 사용했던 것 중 출처가 분명한 것을 선정한 것이다.

문화재 지정 15점의 해녀용품은 물소중이, 물적삼, 물체(물치기), 까부리, 족쇄눈, 테왁 망사리, 빗창, 종개호미, 까꾸리, 작살, 성게체, 성게칼, 질구덕, 눈곽, 쉼눈 등이다.

해녀들은 물질할 때 입는 '물옷' 즉, 무명으로 만든 물소중이와 물적삼을 입고 물수건으로 머리를 정돈한 후 물에 뜨기 위해 테왁을 짚고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전복을 떼 때 쓰는 빗창과 호미등을 가지고 잠수를 하고, 까꾸리로 바위틈의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물속 돌맹이를 뒤집고 물 밑을 헤집고 다녔다. 해녀들은 상황에 따라 각종 도구를 사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망사리에 담으며 작업을 했다.

물옷인 물소중이의 경우는 옆트임이 있어 입고 벗기 편하며 체격에 맞게 조절하는 융통성을 보인다. 또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 물 속에서 활동하기 좋게 디자인됐다.

물질도구는 제주바다의 어장 조건과 작업 환경에 맞게 고안 돼 제작기법이나 착용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이처럼 물질용품은 해녀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오롯이 담겨있다.

또 해녀들은 '바다밭'을 단순한 채취의 대상이 아닌 끊임없이 가꾸고 공존해야 할 곳으로 인식하면서 바다 생태환경에 적응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며 획득한 지혜를 세대에 걸쳐 전승해 왔다.

물속에서 1~2분가량 잠수하며 참았다 내뿜을 때 내는 숨비소리처럼 물질용품에는 생계를 위해 숨을 참고, 수압을 견디며 바다에서 고되게 일을 해야 했던 제주 여성의 강인한 생명력과 삶이 들어있다.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